



## 무안공항 첫 飛翔

오는 11월 8일로 예정된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25일 항공기 이착륙 등 최종 종합시험운영이 실시됐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 B737-500이 이날 오후 3시 깔끔하게 단장된 활주로를 날아 역사적인 첫 이륙을 하고 있다. /무안공항=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선주자 연속 인터뷰-민주당 이 인 제 후보 ▶인터뷰 5면

# “문화수도에 5조 더 투자”

## “예산 10조로 확대...경제특구청, 목표에 신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을 10조원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대전 유성관 광호 호텔에서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광주를 진정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부족하며 총 예산 규모를 10조원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얼핏 과도한 공약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남 지역에는 신경제 대책구를 지정, 아시아 공략을 위

한 대표적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목표에는 경제특구 행정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총청을 시작으로 전국 버스투어에 나선 이 후보는 이날 “총청을 기반으로 호남에서만 지지해준다면 지지 상승은 영남의 동부벨트를 거쳐 수도권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범여권의 단일후보로 나선다면 거품과 허상에 쌓인 이명박 후보를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5년간 7% 성장률 기반 으로, 매년 60만개씩 임기 내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중

산층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해 “영어권 재외동포 학생을 각 대학에 초청, 원어민 강사로 활용, 영어 교육에 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름값, 통신비 등 10대 거품을 제거하여 서민 생활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후보 단일화와 함께 정당 간의 통합을 이루는 ‘원샷 대통령’과 관련,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물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 필요”

## 박시장·박지사 합의...“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후 이전 논의”

### 건교부 “여론수렴후 결정”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에 합의,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시·도는 또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내년 6월 이후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 이전’이란 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 광주 지역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3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만나 광주공항 국제선을 일단 광주에 존치시키되, 내년 6월로 예정된 광주~무안 고속도로 완공 이후 국제선 무안 이전을 재검토하자는 데 합의했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와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존치하고 무안공항은 새롭게 계획 중인 국제선과 목포 공항 노선을 중심으로 개항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합의된 사항을 박 지사와 공동으로 청와대와 건교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전북이나 전남 동부권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물류비용이 증가해 승객들이 무안공항을 기피하고 대신 인천·김해·청주공항을 이용, 결국 광주~무안 양 공항의 이용객이 줄어 공멸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박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무안공항을 개항하면서 무조건 광주의 국제선을 이전하기 보다는 무안~오사카, 무안~대만 등 손쉽게 개척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국제 노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면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제선 이전 문제를 재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광주공항 국제선을 존치하는 기간 동안 건교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국제선 개설에 노력하는 한편 광주~무안 고속도로

가 완공될 경우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박 시장은 전했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국장은 “광주공항 국제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정대로 오는 11월 8일 무안공항을 개항하되, 내년 6월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을 검토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건설교통부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에 대해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광주공항의 국제선 존치 주장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지역 여론을 더 살피고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해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의 가능성도 남겨 놓았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北 고려민항 광주에 온다

### 오늘 전남 방북단 태우려

광주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북한 여행객이 광주지역 인사를 태우고 서해 직항로를 날게 된다.

박준영 전남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도 방북단 100여명은 26일 광주공항에서 고려민항 전세기를 타고 평양으로 떠난다. 이번 방북은 전남도가 전남도민남북교류협회의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 평양시 만경대에 설립한 ‘공 발효식품청국장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광주에 오는 고려민항 여객기는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 오전 9시경 광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김치가 ‘金치’ 음식점 “대신 다른 반찬을...”

“김치 더 주세요.” “김치는 안된다 그랬잖아. 차라리 다른 반찬 더 드릴게요.”

요즘 배추값 폭등으로 김치가 ‘금치’가 되면서 광주 시내 음식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치 전장’이다.

김치소비가 늘어나는 겨울을 앞두고 식당마다 ‘김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태풍과 잦은 가을비로 인해 김장용 배추의 작황이 나빠진 데다, 경작면적도 지난해에 비해 11%나 줄어들어 배추값이 무려 2배나 뛰었기 때문이다.

24일 전남농협 공판장에서 배추는 3포기 9천837원으로 지난해 3천361원에 비해 무려 193%, 무는 1개에 1천300원에서 3천140원으로 141%나 올랐다.

이러다보니 식당에서 김치를 더

줄 수 없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광주시 동구 한 국밥집 주인은 “5천원짜리 국밥을 팔면서 김치 두어 번 내주면 남는 게 없다”면서 “김치 말고 생선을 내놓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틈새를 노려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김치 전장’에 뛰어 들었다. 이들 업체들은 올 김장비용이 예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차라리 사먹는 게 싸다’는 주부들이 부쩍 늘어나자 포장김치나 김장재료 할인 판매에 팔리고 나섰다.

롯데닷컴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각기 독특한 특징을 마련, 질임배추에서부터 깍두기·포기김치·갓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를 시중보다 30~50% 할인판매해 주부들을 유혹

하고 있다. 이처럼 ‘김치 전장’이 가열되면서 중국산 김치도 기세를 부릴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김치 수입 예상량은 지난해 17만8천톤에 비해 30% 증가한 23만톤에 달해 국내시장의 34%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유망기업 장학 5년 역사인만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innisfree